

<서울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올해 재수로 서울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합격수기를 작성합니다. 저는 2차는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1차 위주로 작성해봤습니다. 2차 못해도... 위상쌤과 장쌤의 1차의 힘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저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 교직이수생이며 미술사학을 복수전공 했습니다. 따로 추가 학기를 다기거나 일을 병행하지는 않았고 부모님께서 제가 대학을 4년 칼졸업하고 임용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를 따랐습니다.

	초수	재수
교육학	17	19.67
전공	39	52.33
1차 총점	56 (컷 : 67.33 / -11.33)	72 (컷 : 66.66 / +5.34)
실기	-	23
지도안	-	8.8
수업실연	-	17.2
면접	-	33.87
2차 총점	-	82.87
총점	-	154.87 (컷 : 151.49 / +3.38)
	위상미술 수강	위상미술 수강

2.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 준비사항 : 패인 분석 / 자기 성향 파악 / 일년의 공부 모토 정하기 / 자신감

저는 재수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패인 및 자기 성향 분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자신의 성향과 패인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인을 분석하면 자신의 성향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에) 제 초수때 생활을 되돌아보며 패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용시험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기에 앞서 명확한 일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일년간 제가 생활한 방식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부분 혹은 불합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새롭게 전략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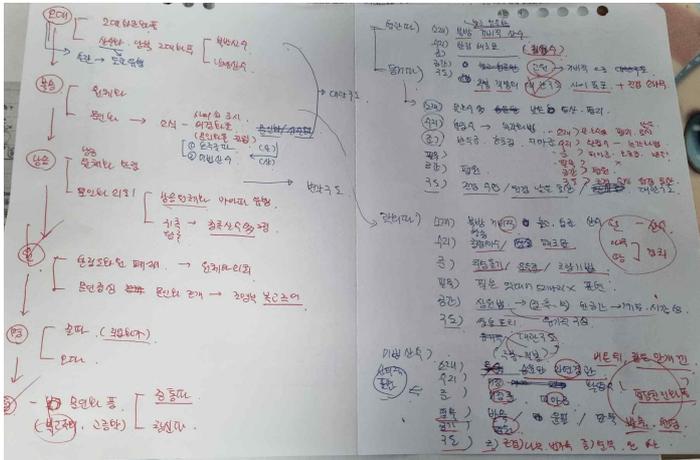
일단 저는 꾸준함이 부족한 스타일이라 올해는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 최대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루 9-11시간정도 공부하면 다음날 쉬고 싶을 때가 많아서 재수때는 6-8시간정도로 대신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했으며 주 7일 중 최소한 4일 이상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5-7월에는 PT를 병행해서 체력적인 부분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입이든, 임용이든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려면 본인이 가진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된다. 나는 올해 간다'는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모의고사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노력했고 이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cf. 강사 선택 : 여러 강사를 들어 개념 섞이는 것도 정리하려면 괜한 시간 잡아먹고 일단 인강을 두 강사를 병행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강사만 봤습니다. 타강사 문제를 구해놓긴 했는데 있는 것만 보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못봤습니다. 위상미술 작년 문제, 필독서도 못봤습니다.

3. 시기별 전공 학습방법 : 수강한 강사 커리 / 공부 진행했던 방식 / 스터디 등

	초수	재수
1-2	-타강사 (표현, 서미) 부분적 수강 (인강)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함께하는 충분한 휴식
3-4	(위상쌤 상담 후 위상으로 강사 변경) -위상 심화 (인강)	-위상 기본 (인강) -위상 심화 (코로나로 인해 인강+직강) -표현 아침 전화 스터디 진행
	-인강 듣기 + 서브노트 만드는데 주력	-기본과 심화를 병행. 심화 진도 전에 해당 파트 기본이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인강 진도도 밀리지 않고 복습도 되어 좋음) -인강을 듣고 기존의 있는 서브를 고치거나 추가하며 보완함. 즉 인강 필기를 보며 한번 보완하고 심화서 회독하고 빠진내용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 (서브를 제작하는게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독과 동시에 수정이 이루어짐) -한 파트당 3일 정도씩 투자하여 회독했고 (7일 중 3일 개인공부할 때라 한 파트에 1주일 걸렸다고 보면 됨. (파트는 미교론(교육과정, 감상 포함)/표현/동미/서미 총 4파트로 자름) -표현파트는 아침 스터디로 대체하여 따로 회독하진 않음. 표현 제외 3개 파트를 중심으로 회독하였고 표현은 처음에만 1회독 해주고 이후로는 시험 막판 한달전까지 전화스터디로 회독을 대체함. 전화스터디는 주 4일 아침 기

		<p>상스터디로 30분간 진행함.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p> <p>-7일 중 주말 휴식, 2일 스터디(교1, 전1), 3일 개인공부</p>
5-6	<p>-위상 심화 (인강)</p> <p>-위상 기본 (인강)</p> <p>-직강 후 복습 스터디 진행</p>	<p>-위상 5.6 문풀 (직강)</p> <p>-회독 스터디 진행</p> <p>-직강 후 복습 스터디 진행</p> <p>-표현 아침 전화 스터디 진행</p>
	<p>-심화를 먼저 듣다가 위상쌤이 혼내서 기본을 늦게 듣기 시작</p> <p>-인강 듣기 + 서브노트 만드는데 주력</p> <p>-서브노트는 인강의 필기, 기본서, 심화서를 모아 단권화 하는 방식으로 제작함</p> <p>-교과서 강의는 따로 듣지 못함</p> <p>-장쌤이 짜주신 스터디원과 복습스터디를 진행. 당일에 배운 내용을 서로 복습함.</p>	<p>-5.6월 문제를 개인적으로 그 주에 복습하며 답안 서술 형식 분석과 함께 해당 파트 회독도 같이 진행.</p> <p>-회독스터디는 3명에서 주 1회 만나서 하루에 심화서 한파트 회독을 진행. 서로 돌아가며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ex. 동양미술사 = 1번-인도, 2번-송 전까지, 3번-송.원, 1번-명.청, 2번 - 고려까지, 3번-조선 초기....) 보통 3-5시간 걸림.</p> <p>읽어나가며 눈으로 회독하고 서로 모르겠는 부분 질문하며 정교화함.</p> <p>-교과서 강의는 재수생 패키지에 없어서 듣지 못함</p> <p>-직강 후에 모여서 복습하는 스터디를 진행함. 다른 팀들과 달랐던 점은 그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한게 아니라 전주에 배운 문제를 복습함. 만약 3/1, 3/8일이 직강날이라면 3/8에는 직강 후 만나서 3/1에 풀었던 문제를 돌아가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복습은 개인적으로 해오고 스터디때는 막힘없이 설명가능하도록 진행함. 개인적으로 복습할 때 녹음을 들으며 빠진 필기가 없나 확인하고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교화시킴.</p> <p>-7일 중 주말 휴식, 2일 스터디(교1, 전1), 3일 개인공부 (주말에 가끔 공부)</p>
7-8	<p>-위상 7.8 문풀 (직강)</p> <p>-위상 5.6 문풀 (인강, 복습X)</p> <p>-직강 후 복습 스터디 진행</p> <p>-주 1회 회독 스터디 진행</p>	<p>-위상 7.8월 문풀 (직강)</p> <p>-회독스터디 진행 (8월 후반쯤까지 진행)</p> <p>-직강 후 복습스터디 진행</p> <p>-표현 아침 전화 스터디 진행</p>
	<p>회독 시작 + 서브노트 만드는데 주력</p>	<p>-파트별로 문풀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도에 맞게 회독함. 즉 1주 미교론 문풀 직강 듣고 와서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미교론 문제를 복습하고 나머지 날들은 2주차 교육과정 문풀을 대비해서 해당영역을 회독하는 형식임.</p> <p>-문제를 통해 정교화된 내용 혹은 새로운 내용들을 서브에 옮겨 넣음</p> <p>-회독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하고 2번에 1번풀로 심화서 회독을 같이 해줌</p> <p>-7일 중 주말 휴식, 2일 스터디(교1, 전1), 3일 개인공부</p> <p>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중간중간 하루이틀씩 쉬.</p>
9-11	<p>-위상 9,10,11 파이널 (직강)</p> <p>-직강 후 복습 스터디 진행</p> <p>-주 1회 회독스터디 진행</p>	<p>-위상 9,10,11 파이널 (직강)</p> <p>-직강 후 복습스터디 진행</p> <p>-표현 아침 전화 스터디 진행</p> <p>-문풀 복습 스터디 진행</p>
	<p>회독 + 9월은 서브노트 보완</p>	<p>-2주에 전체 1회독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진행 (서브+심화서로 회독, 기본서는 한번만 같이 봐줌)</p> <p>-시험 직전 2주만 회독 속도를 줄여서 돌림. 5일 1회독, 3일 1회독, 2일 1회독, 시험 전날 부족한 부분 발체 1회독으로 돌림.</p> <p>-한달전까지 표현 전화아침스터디 진행</p> <p>-문풀 복습 스터디를 시작함. 직강 진도와 개념 회독을 진행하면서 이전 5-8월 문제를 잘 못보게 되어서 전화스터디를 구함. 하루 1회씩 주4일 정도로 진행.</p> <p>-9월 시작즈음에 아이패드로 5월부터 지금까지 문풀에서 다룬 문제를 스캔떠서 파트별로 분류하기 시작함. 시험전 막판 한달반 동안 개념 회독과 함께 해당 영역의 문제들을 같이 보기 시작함.</p>
총평	<p>전반적으로 서브노트 만드는데 주력하여 이론에 대한 제대로된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음</p> <p>▼</p> <p>깊이있는 이해가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회독도 곁핍기식 회독이 이루어짐</p> <p>▼</p> <p>이론서 대신 서브 회독에 집중하였고 문제 복습을 등한시함</p> <p>▼</p> <p>문제 복습을 하지 않아서 서브에 새로운</p>	<p>기존에 있는 서브를 활용하여 회독하였으며 심화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봐줌</p> <p>▼</p> <p>초반부터 각 파트별로 개념 정교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함. 초반부터 일주일에 전체 1회독 등 짧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1주일에 한파트 회독 등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함</p> <p>▼</p> <p>5.6월에 제대로 된 답안 서술 방법을 익히고 문장 형식을 익힘. 이를 바탕으로 7-10월에 답안 서술 방식을 적용해보며 연습함</p> <p>▼</p> <p>문제를 풀며 계속적으로 개념을 정교화해나가고</p>



(이 역시 대중 아 이런식으로 공부했구나만 봐주시고 내용은 패스해주세요..)

첫사진은 장쌤이 알려주신 형식인데요. (다들 필기가 있으실텐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형식대로 전체 화파의 특징부터 개별 도판 특징까지 인출하시면 좀 쉽게(?) 외워지더라구요..

(별거 아님 저스.. 저는 초수때는 제대로 적용을 못했다가.. 재수때 아 헐 이렇게 하는거구나!를 알고 적용하니깐 훨씬 좋았어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백지쓰기 인출한 이면지입니다.

6) 서양미술사 : ① 각 사조별로 배경 (사상, 사회, 문화, 미술) / 주제 / 표현 / 그 화파에 속하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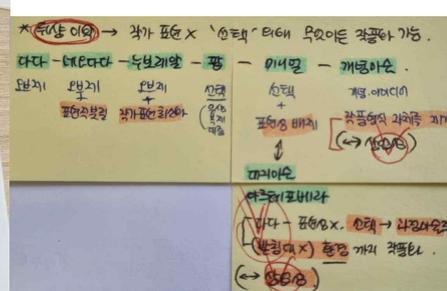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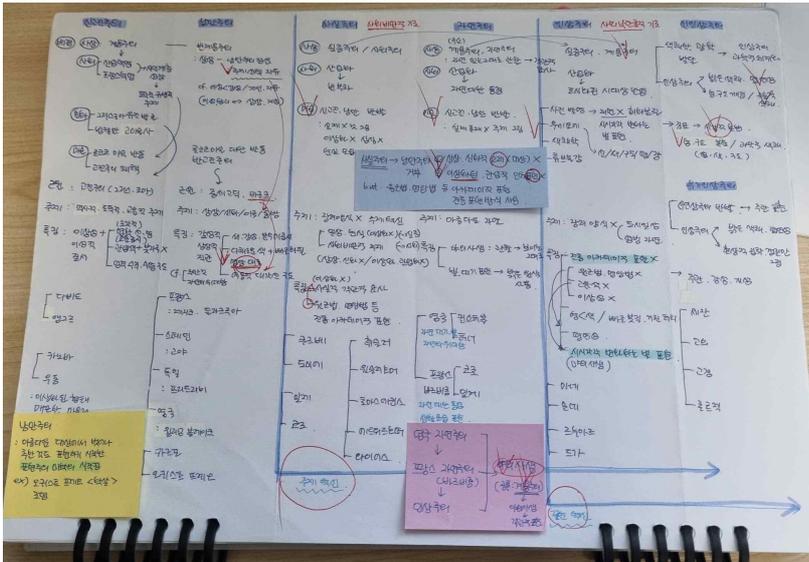
A4 용지를 가로로 6등분한 후 정리해보길 권장.

어떤 사조부터 주제의 혁신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조부터 표현의 혁신이 일어났는지 등을 확인하면 흐름이 금방 잡힘

② 추상, 구상 으로 전체 흐름 정리해보기

③ 순수 추상, 순수 기하추상 / 주관적 추상, 객관적 추상을 구분하면 나중에 각 사조별로 외우기 쉬움

④ 뒤상 미학의 흐름 정리하면 현대미술쪽 서술하기가 쉽다고(?) 느꼈음



(위 사진은 위상쌤께서 그때그때 말씀하며 정리해주실걸 모아서 정리한 제 서브의 일부인데요. 참고가 될까해서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위상쌤이 공식적으로 판서로 정리해주신게 아니고 제가 위상쌤 말을 제 개인 생각대로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용보다는 대중 어떤식으로 했구나~하는 부분만 참고해주세요!)

7) 문제 수합하기 : 문제를 파트별로 묶으면 보통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답안 형식을 보기도 편하고 하나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함. 일찍부터 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9월 말부터 개념 회독하면서 해당파트 문제도 같이 회독 해주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함. 아이패드의 굿노트를 활용하면 스캔 및 분류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음.
cf. 위상쌤 문제가 굉장히 좋음. 놓치고 있던 큰 흐름을 꿰뚫는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음. 문제를 꼭 잘 분석하기를 추천함. 시험볼 때 보다는 집에와서 복습하면서 위상쌤 문제를 보고 유레카를 외친적이 많을 정도로 문제가 정말정말정말 좋은게 많음. 꼭 얻어가시길 바람. 장쌤은 답안 서술 형식대로 답안이 작성되어있는 부분이 많아 답안 형식 분석하기가 좋음 (5월)

8) 슬럼프 극복 : 임용은 장기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가 질리면 안되는 것 같음. 얇고 길게 꾸준히 끌고가는게 관건

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따라서 공부와 병행할 취미를 꼭 하나 가졌으면 함.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임용을 함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음. 머리를 환기하고 쉴 수 있는 취미를 꼭 하나 가면 공부에 도움이 됨.

9) **멘탈 관리** : 성적이 나오고 이를 통해 가능성이 보이면 멘탈관리는 어느정도 됨. 그래서 초반에 공부하는게 중요함. 5,6월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기틀을 잡아놓아야 뒤가 편하고 성적도 나옴. 5,6월 때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해놓으면 첫째, 성적이 나와서 멘탈 관리도 되고, 둘째, 많은 공부를 통해 개념 및 문장서술형식을 익히게 되어 다음 커리를 탈 때 좋은 성적으로 연결됨. 5,6월 때 공부를 많이 제대로 해놓는게 중요한 것 같음. 저의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긴했는데 그래도 중상위권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모고 성적과 비슷하게 나왔구요. 참고로 1차 끝나고 장쌤 가채점을 받았는데 실제 성적 점수와 똑같았어요..

10) **체력 관리** : 따로 피티를 함. 재수때는 초수때와 달리 마음가짐이 다름. 따라서 몸과 마음의 병이 심해서 소화도 잘 안되고 밤에 토하기도 함. 따라서 체력을 쌓아 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음.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피티를 통해 체력을 키워둬서 막판까지 겨우 버텼던 것 같음. 개인적으로 초수때는 운동 병행 안했더니 일년 동안 20기로 넘게 쪼뼂. 막판에 공부를 안하고 놀았던 것도 체력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듯함. 체력적으로 힘드니 공부를 안하게 되고 성적이 안나오니 포기하게 됨. 악순환임. 꼭 운동을 병행하길 바람.